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사회탐구(동아시아사) 영역 분석

1. 출제 경향

* 출제 경향 특징

1. 편중된 단원 없이 단원별로 고르게 출제되었다.
2.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묻는 문제보다는 동아시아 3국을 연계하여 묻는 문항이 다수 출제되었다.
3. 문항의 소재는 기존 시험이나 EBS 연계교재 등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것들이어서 체감 난이도는 높지 않았다.
4. 근현대 시기에서 난이도가 높고 변별력을 갖춘 문항이 주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끝나지 못한 고3 수험생들에게는 난이도가 높았다.
5. EBS 수능 교재에서 자료를 직접 인용한 문항이 적었기 때문에 교재와의 체감 연계율은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의 사탐 영역의 동아시아사 과목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단순 지식을 묻는 문제보다는 동아시아의 상황을 종합하여 시대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문항들이 다수 출제되었다. 따라서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시대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고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문항 형식은 유물 카드, 사료, 가상 편지, 지도, 신문, 인터넷 창 등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었다. 지도를 활용한 문항의 경우 지도에서 국경선과 수도 등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했다. 이는 최근 지도 활용 문항의 경향으로, 이를 대비하기 위해 학생들은 각 시대별로 국경선과 수도의 위치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EBS 교재와의 연계는 70%로 개념 원리 활용, 자료 상황 활용, 문항의 축소 확대 변형 등 골고루 이루어졌다. 두 개 이상의 자료를 활용하거나 새롭게 변형해 제시하는 방법 등이 사용되어 연계 체감도는 다소 낮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2. 난이도

※ 2016년 6월 시행 모의평가/ 2017학년도 수능과의 시험 체감 난이도 비교

영역	2016년 6월 시행 모의평가 비교	2017학년도 수능 비교
동아시아사	비슷함	다소 쉬움

동아시아사의 경우 다소 어려웠다고 평가되는 2017학년도 수능보다 쉬웠으며, 2016년 6월 시행된 모의평가와 비슷하게 출제되었다. 특히 2017학년도 고난이도 문항 중 변별도가 낮은 문항이 많았던 점을 의식하여 변별도가 높은 고난도 문항을 세 문항 정도 배치시켰다. 고난도 문항의 경우 두 개의 자료를 제시하여 사이 시기의 사건을 묻거나, 특정 사건을 제시한 후 당시 동아시아 상황을 묻는 형태로 출제되었다. 이는 상위권 학생들이 특정 시기의

동아시아 전체 상황을 유기적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했음을 알 수 있다.

12번	15번	20번												
<p>12. 다음 조치가 단행될 시기를 연표에서 옮겨 고른 것은? [3점]</p> <p>과외정 체제공이 이뤄지길, "마땅히 평시서로 하여금 30년 이내에 새로 개설된 시전을 조사하여 모두 학과하도록 하고, 형조와 한성부에 분부하여 육의전 이외의 시전은 난전을 한 자들을 분감아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라고 하니, 왕이 그에 따랐다.</p> <table border="1"> <tr> <td>1392</td> <td>1519</td> <td>1592</td> <td>1680</td> <td>1811</td> <td>1894</td> </tr> <tr> <td>(가)</td> <td>(나)</td> <td>(다)</td> <td>(라)</td> <td>(마)</td> <td></td> </tr> </table> <p>조선 건국 기묘사화 일진제안 경신환국 홍경래의 난 갑오개혁</p> <p>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p>	1392	1519	1592	1680	1811	1894	(가)	(나)	(다)	(라)	(마)		<p>15. 밑줄 친 '의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p>  <p>1902년 4월 29일, 상하이 훙커우 공원에서 일왕의 생일과 상하이 사면의 승리를 축하하는 기념식이 열렸다. 이때 기념식 단상에 복단을 연이 일본군 장성과 고관 다수를 차단한 의거가 일어났다.</p> <p>그로 인해 만보산 사건 이후 급속도로 약화된 중국인의 반한 감정이 크게 줄어들었다. 또 중국 국민당 정부가 한국 독립 운동을 지원하지 않게 되어, 독립 운동 국면의 대반전이 이루어졌다.</p> <p>① 한인애국단원 윤봉길이 일으켰다. ② 북벌주의 이념에 입각하여 일어났다. ③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④ 일제의 국가 총동원법 공포 후 발생하였다. ⑤ 국내에서 신간회가 창립되는 데 영향을 끼쳤다.</p>	<p>20. 다음 학습 주제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p> <p>학습 주제 : 동해를 지키는 섬, OO의 역사</p>  <p>① 안동북의 활약상을 조사한다. ② 윤요호 사건의 원형을 탐사한다. ③ 세종로 조약의 내용을 분석한다. ④ 제주 4·3 사건의 전개 과정을 살펴본다. ⑤ 제너럴 셔먼호 사건의 발생 원인을 알아본다.</p>
1392	1519	1592	1680	1811	1894									
(가)	(나)	(다)	(라)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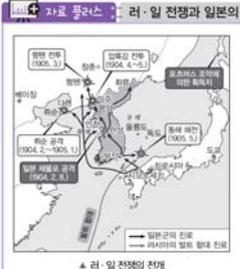
고난이도 문항인 12번, 15번, 20번의 경우 선택지 사이의 시기가 매우 촘촘할 뿐 아니라 지문과 선택지 간의 논리적 연계성이 높지 않다. 따라서 학생들은 각 사건의 연도를 어느 정도 암기하고 있어야 정답을 고를 수 있다. 이는 2017학년도 모의평가와 수능의 출제 경향이 이어지는 것으로 2018학년도 역시 연도 암기가 상위권 학생들에게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외에도 9번 문항의 자료는 기존 시험이나 EBS 수능 교재 등에 전혀 사용되지 않았던 자료이기 때문에 국가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예상된다.

3. EBS 교재와의 연계 분석

문항 번호	연계유형	EBS 교재 연계 내용	
		교재명	쪽수
1	문항의 축소, 확대, 변형	수능특강 동아시아사	10
2	문항의 축소, 확대, 변형	수능특강 동아시아사	119
3	문항의 축소, 확대, 변형	수능특강 동아시아사	28, 34
4	개념 원리 활용	수능특강 동아시아사	71
5	문항의 축소, 확대, 변형	수능특강 동아시아사	85
7	문항의 축소, 확대, 변형	수능특강 동아시아사	38
10	문항의 축소, 확대, 변형	수능특강 동아시아사	20, 23
11	문항의 축소, 확대, 변형	수능특강 동아시아사	55, 56
12	개념 원리 활용	수능특강 동아시아사	146
13	개념 원리 활용	수능특강 동아시아사	110
14	문항의 축소, 확대, 변형	수능특강 동아시아사	66
16	문항의 축소, 확대, 변형	수능특강 동아시아사	164, 166
19	문항의 축소, 확대, 변형	수능특강 동아시아사	131
20	문항의 축소, 확대, 변형	수능특강 동아시아사	170

4. 대표 연계 문항

<p style="text-align: center;">6월 모의평가 문항 3번</p> <p>3. 다음 대화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 10px 0;">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width: 25%;"> <p>위양으로 천도한 지 2년이 좀 지났네.</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width: 25%;"> <p>최근 황제께서 탁발씨는 원씨로 성을 바꾸라는 명을 내리셨어.</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width: 25%;"> <p>작년에는 서른 살 이하의 사람은 조정에서 선비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셨지.</p> </div> </div>  <p>① 금의 한족 지배 ② 원의 남인 통치 ③ 청의 팔기 편성 ④ 흉노의 동호 복속 ⑤ 북위의 한화 정책</p>	<p style="text-align: center;">EBS 수능특강 동아시아사 34쪽 3번</p> <p>3 밑줄 친 '황제'의 재위 시기 동아시아 상황으로 옳은 것은?</p>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동아시아사 신문</p> <p style="text-align: center;">황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다</p> <p>황제가 다음 정책을 발표하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매가 좁고 몸에 붙는 의복 대신 넓고 긴 의복을 입도록 한다. • 북방의 언어(선비어)를 사용하지 말 것이며, 반드시 중원의 언어(한어)를 써야 한다. • 위양으로 옮겨 온 선비인이 죽은 후 북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 탁발씨를 원씨로 고치도록 한다. </div> <p>① 다이가 개신이 단행되었다. ② 전방후원분이 많이 축조되었다. ③ 많은 인재들이 제자백가를 형성하였다. ④ 철제 농기구와 우경이 처음 보급되었다. ⑤ 동아시아 최초의 유목 국가가 등장하였다.</p>
---	--

<p style="text-align: center;">6월 모의평가 문항 19번</p> <p>19.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margin: 10px 0;">  <div style="margin-left: 20px;"> <p>이 전쟁이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에 대해 말해 볼까요?</p> </div> </div> <p>① 일본이 을미사변을 일으켰어요. ② 대한 제국이 외교권을 빼앗겼어요. ③ 청이 타이완의 지배권을 상실했어요. ④ 청이 크리스티고 선교의 자유를 인정했어요. ⑤ 베트남이 코친차이나 동부 3성을 상실했어요.</p>	<p style="text-align: center;">EBS 수능특강 동아시아사 131쪽 자료플러스</p>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러·일 전쟁과 일본의 한국 지배를 인정한 열강 간의 조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쓰라-태프트 밀약(1905.7) 러·일 전쟁의 완인이 된 한국은 일본이 지배할 것을 승인한다. • 제2차 영·일 동맹(1905.8) 제3조 일본국은 한국에서 정치·군사·경제상 특별한 이익을 중요·증진하는 데에 정당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도·감리 및 보호 조치를 한국에서 집행할 권리를 가진다. •포츠머스 조약(1905.9) 제2조 러시아 제국 정부는 일본 제국이 한국에서 정치·군사·경제상으로 특별한 이익을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일본 제국 정부가 한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 보호 및 감리의 조치를 취하는 데 이를 저지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다. <p>일본은 1902년 제1차 영·일 동맹을 맺고 러시아와의 전쟁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1904년 일본은 선제 공격으로 러시아와 전쟁을 시작하였다. 전쟁에서 일본이 유리해지자 1905년 일본은 미국과 가쓰라-태프트 밀약, 영국과 제2차 영·일 동맹을 맺었으며, 러시아와는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하여 전쟁을 마무리짓고 한반도에 대한 독립적 지배권을 인정받았다. 이후 일본은 대한 제국과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외교권을 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였다.</p> </div>
--	--

5. 2018학년도 수능 마무리 학습 전략

수능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평가원 시행 모의평가를 정리해 보면 올 해 수능을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 학습 전략이 필요하다.

1) 상위권 학습 전략

최근 출제경향은 정확한 년도를 암기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항들이 고난이도로 출제된다. 그러므로 상위권 학생들은 각 국가별 연표를 작성하여 한 시대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6월보다 난이도가 높아질 것이라 예상되는 수능에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일본과 베트남의 주요 사건들도 다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야 한다.

2) 중·하위권 학습 전략

변별력 확보를 위한 3개 정도의 고난이도 문항을 제외하면 주요 개념과 흐름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 다수이다. 따라서 중·하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EBS교재 등을 활용하여 동아시아의 주요 개념과 국가별 흐름을 반복하여 익히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